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10. 29(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훈련 실시 20개 기관·민간단체, 500명 훈련 참여, 실제 상황 방불케 해 29일 김천서 공장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누출 대응 훈련	안전정책과	사진 별첨
② 경북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30대 출동대세 유지, 잔파제 120명 감원 240명 배치	산림자원과	
③ 하나 된 대구·경북, 손잡고 미래로! 31일부터 4일간 두류공원에서 2019 대구·경북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한마당 직거래장터, 지역맛집, 대구·경북한뿌리상생관, 김장체험 등 다채롭게 준비	농식품유통과	사진 별첨
④ 4차 산업의 리더 경상북도, 국방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31일부터 3일간 구미서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박람회 개최, 국방 정보통신기술(CT) 산업전시, 비즈니스 매칭상담, 우수 제품평가, 주한외국대사관 무관단 초청	미래융합 산업과	사진 별첨
⑤ 경북여성단체, 하나되는 어울림 ‘끼’ 의 향연 펼쳐 양성평등 단막극, 사물놀이, 난타, 댄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실력과 끼 발휘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활기찬 지역사회를 위해 소통과 화합 다짐	여성가족 정책관	사진 별첨
⑥ 공직자 이제는 ‘변해야 산다’ 경북도,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가져	정책기획관	사진 별첨
⑦ ‘보이소 티브이(TV)’ 에서 유명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국내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경상북도의 멋과 맛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와 협업 콘텐츠 제작	대변인	사진 별첨
⑧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가속화, 안동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도내 3개 대학(한동대, 안동대, 대가대) 과기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운영 국비 210억원 지원 받아 4년간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 별첨
⑨ ‘경북 북부권 불교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학술대회 ‘일제 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상(上)’ 발간서 활용 학술행사 370년전 제작된 상주 용흥사 명문와(銘文瓦) 고국 품으로	문화유산과	사진 별첨
⑩ 구조 및 치료동물을 건강하게 다시 자연으로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독수라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방사	산림자원 개발원	사진 별첨
⑪ 경북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보건환경 분야 협력 체계 구축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국가위생역학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환경 연구원	사진 별첨
⑫ 약용작물 기능성 연구 및 소재 개발 세미나 개최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새로운 약용작물 산업 성장 동력 발굴 위해 정보 교류의 장 열어	농업기술원	사진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작성자	과장	유창근		
			팀장	전종헌	주무관	김성경
		연락처	054-880-2320			

경북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훈련 실시

- 20개 기관·민간단체, 500명 훈련 참여, 실제 상황 방불케 해 -
- 29일 김천시 공장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누출 대응 훈련 -

경상북도는 29일 유한킴벌리 김천공장(대광동 소재)에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공장화재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정한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김천시, 육군 50보병사단 화생방지원대,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10개 기관과 경북안전기동대 등 10개 민간단체, 주민 등 500명이 참여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화재발생 관심단계, 공장화재 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에 따른 주의단계, 사망자 및 매몰자 발생, 황산누출 등 경계단계, 황산 추가 누출 및 주택가 가스 확산 심각단계, 주변지역 오염방제, 화학물질 누출차단 및 피해 시설 복구, 이재민 구호, 수습 수습복구단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전년도 훈련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체 및 민간단체 참여, 지역의 위험성분석을 통한 훈련유형 설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현장훈련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등을 실행함으로써 대응훈련 효과 극대화 및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실시됐다.

도는 이날 현장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28일에 사건의 전개 양상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 실제 조치사항들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

기반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협력 기관 및 민간단체가 총동원 되었으며, 헬기, 구급차, 화생방 제독차, 드론, 구역표출(CARIS) 정보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구조·구호 실시하여 실제 발생 상황과 같은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 CARIS시스템 : 사고물질 피해예측 및 오염도에 따른 구역표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전 국가적인 훈련으로 올해 15회째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 부서와 유관기관이 재난 발생 시의 역할을 정립하고 협업부서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19 경상북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공장화재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토론 및 현장훈련)

□ 훈련 개요

○ 기 간 : 2019. 10. 28.(월) ~ 11. 1.(금) [5일간]

※ 토론훈련 : 10.28.(월) 10:00, 현장훈련 : 10.29.(화) 15:00

○ 참여인원 : 25,000명(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일반도민 등)

○ 훈련방법 : 재난유형에 따른 토론 및 현장대응 종합훈련

○ 중점훈련 : 공장화재·유해화학물질 누출 훈련(토론+현장훈련)

□ 훈련일정

일 자	훈 련 내 용	비 고
10.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화재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토론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토론훈련(-2F, 전시종합보고장) ※ 공무원비상소집 훈련 예정(10. 28. 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실, 13개 협업반, 환경안전과 등 83명 응소 	행정부지사 도 안전정책과
10.2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화재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현장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 김천시 대광동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 20개 유관기관, 도민 등 500여명 	경제부지사 도 안전정책과 김천시
10.3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 다중이용시설 대피 훈련(이마트 구미점) ○ (14:00) 전국민 지진대피 훈련(도청사) ○ 불시화재 대피훈련(도청사) 	구미시, 도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청사운영기획과
10.3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0) 재난취약시설 대피 훈련(으뜸요양병원) 	경주시, 도 안전정책과
1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 다중이용시설 대피 훈련(경주대명리조트) 	경주시, 도 안전정책과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계획

■ 훈련개요

- 일 시 : 2019. 10. 29(화) 15:00 ~ 16:25
- 장 소 :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 참 석 자 : 20개 기관 500여명
 - ※ 경제부지사, 협업반 및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 복장 : 민방위복(민·관), 정복(군, 경, 소방)
- 주요내용 : 공장화재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현장훈련

■ 시간계획

시간계획		주 요 내 용	비 고
14:45~15:00	15'	○ 사전영상, 내빈소개 등	
15:00~15:10	10'	○ 훈련상황 설명, 훈련메시지 전달	안전정책과장, 경제부지사
15:10~15:25	15'	○ (화재) 자위소방대출동, 인명구조 등	
15:25~15:55	30'	○ (유해화학물질누출) 대피방송, 주민대피, 인명구조 등	
15:55~16:10	15'	○ (구호복구) 이재민 구호, 피해지역 수급 복구 등	
16:10~16:25	15	○ 강평 등 훈련 종료	경제부지사

- 재난상황 : 공장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훈련
- 일시/장소 : 2019. 10. 29(화) 15:00 김천시 대광동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화재
- 인력/장비 : 도, 김천시, 유관기관, 주민 등 500명/구급차, 드론 등 69대

구 분	계	주민	체험단	유 기 관	경 찰	50사단	소 방	경북도	김천시
인 력	500	70	15	145	20	20	130	50	50
장 비	69	-	-	17 (차량 등)	2 (순찰차 등)	2 (트럭)	30 (구급차 등)	-	18 (트럭 등)

□ **훈련내용**

① **1단계(주의.경계) : 공장화재대피, 화재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위험**


- 유한킴벌리, 119 : 비상사태 통보, 자위소방대 활동, 선착대 도착 화재진압 등
- 도·김천시 : 비상근무, 상황판단회의, 주민대피 안내,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 김천경찰서 : 주민대피 방송, 지방도 교통 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등
- 안전기동대, 아마추어무선연맹 등 : 주민대피 지원 등

② **2단계(심각단계) : 유독가스 발생 및 인근 주택가 확산, 인명피해발생 대응 훈련**

- 김천시 : 통합지원본부 및 응급의료 설치.운영, 현장지휘권 인수 등
- 경북도 : 상황판단회의, 현장상황지원 지원관 파견, 구호셋 지원 요청 등
- 김천소방서 : 현장지휘권 인수, 긴급구조지원기관응원요청, 인명구조 등
- 경북경찰청, 50사단 : 교통통제, 긴급구호, 실종자 수색 등

③ **3단계(수습복구) : 주변지역 오염 방제 및 수습복구**

- 도·김천시 : 중장비 및 인력,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 한전, kt : 전기선로 및 전화 선로 복구
- 안전기동대 등 : 의료.방역.방재 등 현장 복구활동 지원 등

 경성북도	보 도 자 료 【19. 10. 29(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 성 자	과 장	김 재 준		
			팀 장	김주태	주무관	이종환
		연 락 처	054-880-3737			

경북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헬기 30대 출동 태세 유지, 진화대 1,200명, 감시원 2,450명 배치 -

경상북도에서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 확보는 물론 홍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으며 각 시·군별로 기동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한다.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2,450여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예방활동과 조기발견에 적극대처 하는 한편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0여명과 가용헬기 30대(산림청 7, 시·군 임차 13, 소방본부 2, 군부대 8)가 출동 태세를 갖추는 등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296천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76개 노선 708km를 폐쇄했으며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 3년간 가을철 산불 현황은 발생 36건, 피해면적 14ha이며 주요 산불발생원인은 입산자실화 8건,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 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전국 산

불발생 건수 596건 중 105건(17.6%), 피해면적 3,246ha 중 87ha(2.7%)로써,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민관군이 합심하여 재난성 산불로 확산되기 전 신속한 초동대응이 적절했음이 입증되었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애써 가꾼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면서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성자	과장	설동수		
			팀장	김왕식	주무관	최수경
		연락처	054-880-3343			

하나 된 대구경북, 손잡고 미래로!

- 31일부터 4일간 두류공원에서 2019 대구경북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한마당 -
- 직거래장터, 지역맛집, 대구경북한뿌리상생관, 김장체험 등 다채롭게 준비 -

경상북도는 31부터 나흘간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19 대구경북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한마당’이 열린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후원하고 (사)재대구경북도민회(이하 도민회), 회장 조동희)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 처음 개최되며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이자 상생과 화합으로 함께 가야할 동반자라는 것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31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내·외빈,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알리는 도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회에서 대구·경북의 단체장에게 ‘대구·경북 농산물 구매약정서 전달식’을 가지고 더 많은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선포한다.

아울러 대형 떡 전달식을 통해 한번 더 대구와 경북의 화합과 상생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과, 샤인머스켓, 대추, 사과한과 등 29개 부스에서 대구·경북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의 장인 농산물 존 ▲경북과 대구의 대표 음식인 용궁순대 국밥, 안동찜닭, 대구의 치킨 등 맛집으로 구성된 맛집 존 ▲한뿌리상생관과 김치체험 등으로 구성된 주제 존으로 구성된 소통교류의 장으로 도농상생 화합한마당축제로 열린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매일 300명에게 선착순 에코백을,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료 택배 서비스를, 경북에서 생산된 신선한 배추 5kg을 체험비 2만원으로 김장김치 체험 후 통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매일 포항, 영천, 영양, 영덕 등에서 준비한 시도민의 날에는 고향지킴이로 구성된 그룹사운드, 통기타, 난타, 한국무용 등 멋진 공연이 준비 되어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 행사를 통해 대구와 경북이 화합과 협력으로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경북에서 생산된 좋은 농특산물을 계속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대구 · 경북 상생도모를 위한 - 2019 **대구·경북**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한마당

■ 행사개요

- 기 간 : 2019. 10. 31.(목) ~ 11. 3.(일), 4일간
- 주 제 : 하나된 대구경북, 손잡고 미래로!
- 장 소 : 대구 두류공원(인라인스케이트장)
- 참관인원 : 10,000명 정도
- 주최/주관 : (사)재대구경북도민회(회장 조동희)
- 후 원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예 산 액 : 300백만원(경북 140, 대구 140, 자부담 20)
- 행사구성
 - 경북 · 대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 30동(경북 25, 대구 5)
 - 맛집 체험관(지역대표 음식점) : 14개소 등



■ 개막식 행사

- 일 시 : 2019. 10. 31.(목) 11:00 ~ 11:30
- 장 소 : 대구 두류공원 內 메인무대(인라인스케이트장)
- 인 원 : 1,000명
 - 도 행정부지사, 대구시장, 국회의원, 시장·군수, 시군 향우회장 등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30~11:00	30'	▶도립국악단(경북), 혼성중창단(대구) 공연	사회:엄지혜(포항mbc)
11:00~11:08	8'	▶개막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11:08~11:11	3'	▶개회사	(사)재대구경북도민회회장
11:11~11:14	3'	▶환영사	권영진 대구시장
11:14~11:17	3'	▶기념사	윤종진 행정부지사
11:17~11:23	6'	▶축 사	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11:23~11:30	7'	▶대구경북 농산물 구매약정서 전달 ▶대형 떡 절단	도민회장→행정부지사·대구시장에게 전달 주요내빈
11:30~12:00	30'	▶라인투어, 식후공연(트롯한마당)	식후행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			
		작성 자	과 장	조 현 애		
			팀 장	윤태열	주무관	김민희
		연 락 처	054-880-2457			

4차 산업의 리더 경상북도, 국방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 31일부터 3일간 구미서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박람회 개최 -
-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시, 비즈니스 매칭상담, 우수제품평가, 주한외국대사관 무관단 초청 -

경상북도는 31일부터 사흘간 구미코에서 국방부, 구미시와 공동 주최하고 금오공과대학교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1일 개막식에는 관계자 및 도민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퍼포먼스와 절도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의장대 공연을 시작으로 에릭존 보잉 코리아 지사장의 기조연설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스마트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박람회는 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박람회로 국내외 산·학·연·관·군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외국 및 외부기업을 도내 유치함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4차산업을 선도하는 경북, 스마트 첨단도시 구미, 미래를 열다!’라는 부제아래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신제품 신기술 전시의 산업전시회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시연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진다.

국방 및 정보통신기술(ICT) 참가기업 신기술 제품 설명회를 통한 우수 제품평가대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기술이전 설명회, 한국통신학회 및 금오공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센터 주관 기술교류회 등 다양한 컨퍼런스를 통해 군, 산업계, 학계 연구자 간의 인적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장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매칭룸을 개설하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방산업체에 공공기관,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하며, 영국, 미국, 미얀마 등 각국의 무기구매를 할 수 있는 주한외국대사관의 무관단을 초청하여 외국 현역 군인, 군 관련 구매 상담 및 판로 기회를 만든다.

가상현실(VR)과 군수 물품을 이용한 국방체험, 전투기 시뮬레이터 탑승, 드론 만들기 및 조정, 드론봇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가을을 맞아 가족단위로 나들이한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행사 마지막 날 우수제품 평가대회 및 드론레이싱·드론축구대회 시상식과 폐막식 그리고 공군 블랙이글즈팀이 만드는 웅장한 에어쇼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기관 인프라가 완비된 경북은 방위산업의 최적지” 라면서 “앞으로 국방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조광래		
			팀장	곽은희	주무관	정현지
		연락처	054-880-4537			

경북여성단체, 하나되는 어울림 ‘끼’의 향연 펼쳐

- 양성평등 단막극, 사물놀이, 난타, 댄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실력과 끼 발휘 -
-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활기찬 지역사회를 위해 소통과 화합 다짐 -

경상북도는 29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난숙)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북여성단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도 및 시군 여성단체에서 14개 단체가 참여하여 양성평등 연극, 사물놀이, 난타,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발표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각 단체들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함께하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웃들과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을 해왔으며, 발표 시작 전에 단체별로 공연과 연습과정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 소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특히, 양성평등 연극(구미여협)은 금년 3월부터 전문감독의 지도를 받았고, 우산 퍼포먼스(포항여협)는 양성평등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안동여협은 하회별신굿 탈놀이 춤사위, 한국생활개선경북연합회는 농사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부채춤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울진 여협은 지난 태풍 미탁의 피해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맹연습을 했으며, 앞으로 있을 군민화합행사

에도 참가해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 참가한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영옥) 회원들은 “우리가 장구를 시작할 때는 건강과 취미활동으로 했는데, 훌륭한 무대에서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노력한 만큼 멋진 공연을 펼치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 고 말했다.

윤난숙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은 “봉사의 아이콘인 우리 여성단체 회원 모두 양성평등 활동,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 금년 한 해를 쉽 없이 달려왔다. 오늘 한마당 행사의 끼를 발산함으로써 ‘삶’ 과 ‘쉽’ 의 밸런스를 잘 이어가고, 그 열정으로 봉사를 이어 갈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조광래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북여성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경북관광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축제장에서 열띤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힘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여성의 사회참여, 지위향상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문화확산에 앞장서 달라” 며 여성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경북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구시·전남도 여성단체와 업무협약으로 경북관광을 홍보하고 축제 품앗이 참여는 물론 ‘엄마랑 경북 여행 할래?’ 라는 주제로 경북 여행 홍보 동영상 공모전도 추진 중에 있다.

『2019 경북여성 소양업(up) 프로젝트』 제2회 경북여성단체 어울림 한마당 계획


도내 여성들의 숨어있는 재능발표를 통해 여성들의 잠재적 역량개발과 여성단체 화합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의 장(場) 마련

I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0. 29.(화) 14:00 ~ 16:50
- 장 소 : 경북도청 동락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 700명 정도(도 및 시군여성단체 등)
- 주최/주관 : 경상북도/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 주요내용 : 개회식, 본행사, 시상식 등
- 주 제 : 하나되는 어울림, '끼'의 향연
- 참가단체 : 14개 단체(무용댄스 8, 악기연주 3, 노래 2, 연극 1)
- 道 단체 3, 시군 단체 11

II 시간계획

구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식전	13:45~14:00	15'	• 홍보영상 및 안내	보이소TV, 친절캠페인
개회식	14:00~14:09	9'	•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사회 정기훈
	14:09~14:12	3'	• 개 회 사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장
	14:12~14:15	3'	• 축 사	여성가족정책관
	14:15~14:20	5'	• 격 려 사	내 빈
본행사	14:20~16:30	130'	• 어울림 마당	14팀
	16:30~16:40	10'	• 특별공연	가수 희재
	16:40~16:50	10'	• 총평 및 시상, 기념촬영	
	16:50		• 폐 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성자	과장	정성현		
			팀장	윤상환	주무관	박승인
		연락처	054-880-2134			

공직자 이제는 ‘변해야 산다’

- 경북도,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가져 -

행정환경과 도민 수요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공직자들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행정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29일 오후 도청 다목적홀에서 공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2019 경상북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한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가 ‘적극행정과 공직마인드 제고’라는 주제로 적극행정 추진 필요성,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주요사례를 들면서 공직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7기 취임 이후 도청 전 직원들에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이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능동적으로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지사 집무실과 전 직원들의 명찰에 ‘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새겨 도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행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엄정제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

고 15개 실행과제를 정해 적극행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금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소극행정 예방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경직된 업무처리 방식 등 소극적인 행정은 과감히 버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며 “적극행정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대변인			
		작 성 자	대변인	김 일 곤		
			팀 장	장수환	주무관	김연진
		연 락 처	054-880-4288			

‘보이소 티브이(TV)’ 에서 유명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 국내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경상북도의 멋과 맛 -
-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와 협업 콘텐츠 제작 -

경상북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기 크리에이터와 함께 만든 도 홍보 영상을 공식 유튜브 ‘보이소 티브이(TV)’ 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연령, 직업, 분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이다.

이러한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종의 매니지먼트 기능을 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또한 호황이다.

경북도는 국내 대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Multi Channel Network) 회사 중 하나인 (주)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경북 소개 영상 세편을 제작하고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는 혼한남매(구독자 수 145만), 급식왕(구독자 수 120만), 배꼽빌라(구독자 수 75만)다. 혼한남매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을 계기로 경주여행, 급식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북의 서원, 배꼽빌라는 지역 특산품 샤인머스켓 등을 각각 주제로 삼았다.

김일곤 대변인은 “최근 가장 주목도가 높고 폭넓은 팬 층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경북의 멋과 맛을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협업을 통해 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엠지(MZ)세대[밀레니얼·제트(Z)세대를 합해 부르는 말]를 중심으로 보이소 티브이(TV) 구독자 수는 물론 영상 조회수의 증대 등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으며 29일 혼한남매를 시작으로 11월 4일 배꼽빌라, 11월 9일 급식왕 순으로 공개되며 경북도 공식 유튜브 보이소 티브이(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식 유튜브 보이소 티브이(TV)는 스마트폰 유튜브 앱, 컴퓨터(PC)에서 ‘보이소 티브이(TV)’ 또는 ‘경상북도’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독’과 ‘알림’을 신청하면 최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첨부 1. 보이소 티브이(TV) 메인 이미지



첨부 2. 방송 캡처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홍인기	주무관	김건희	
		연 락 처	054-880-2478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가속화 안동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 도내 3개 대학(한동대, 안동대, 대가대) 과기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운영 -
- 국비 210억원 지원 받아 4년간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 -

경상북도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산업현장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요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걸음이 한동대학교, 안동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29일 올해 4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안동대학교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권영세 안동시장,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권순태 안동대 총장, 소프트웨어 지역 기업 등 산·학·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을 혁신함으로써, 국가·기업·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전국 40개 대학 중 우리 지역은 2017년 한동대학교, 2019년 안동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3개 대학은 4년간 정부지원금 각 70억원(1년차 10억원, 2년차부터 20억원)을 받으며,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교육 교과과정 전면 개편, 타 전공지식과 소프트웨어 소양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인재선발·교원평가 개선 및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지원 등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과 가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제막식을 가진 안동대는 총장 직속의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을 설립하여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인 디지털전통문화와 스마트팜을 특성화 융합 분야로 지정·운영하고, 기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형 소프트웨어 전공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이노메이커랩(실습실)을 통한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등 ‘시·공간 초연결 교육 플랫폼을 통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무엇보다 인적자원의 역량이 중요한 영역으로 3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경북형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가치가 산업계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현판제막식 계획

I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0. 29.(화요일) 14:00 ~ 16:00
- 장 소 : 안동대학교(국제교류관 대회의실, 공과대학 2호관)
- 참 석 : 100명
 - (정부)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 (기타) 안동시장, 시의회의장, 도의원, 시의원, 산업체 등

II 주요내용

- 환담회, 인사말씀 및 SW중심대학 사업 소개
- SW중심대학 현판제막식, 이노메이커랩(실습실) 시찰 등

III 세부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4:00~14:25	'25	○ 주요 참석자 환담	국제교류관
14:25~14:30	'5	○ 이동(VIP룸 → 대회의실)	
14:30~14:40	'10	○ 참석자 소개 및 개회사	대회의실
14:40~15:10	'30	○ (환영사) 권순태 안동대 총장 ○ (축 사) - 과기정통부 강도현 소프트웨어정책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석제범 원장 - 경상북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 권영세 안동시장, 정훈선 시의회 의장	
15:10~15:20	'10	안동대 SW중심대학사업단 소개	
15:20~15:30	'10	참석자 기념사진 촬영	
15:30~15:40	'10	이동(국제교류관 → 공과대학 2호관)	
15:40~15:50	'10	안동대 SW중심대학 현판 제막식	2호관
15:50~16:00	'10	마무리 및 해산	

참고

주요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정 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지자체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권영세	안동시	시장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대 학	권순태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총장
	김정희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대학원장
	박경봉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교무처장
	송준협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학생처장
	김현기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기획처장
	이혁재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산학협력단장
기 업	김용균	웹노믹스	대표
	김재엽	도미노웍	대표

「SW 중심대학」 운영 현황

◆ SW중심대학 지원을 통해 4차산업을 선도하는 SW융합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
 - 한동대 : '17~'20년(4년)
 - 안동대, 대구가톨릭대 : '19~'22년(4년)
- 사업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사 업 비
 - 한동대 : 10,370백만원(국비 7,000, 도비 120, 시군비 280, 기타 2,970)
 - 안동대 : 8,866백만원(국비 7,000, 도비 120, 시군비 280, 기타 1,466)
 - 대가대 : 9,806백만원(국비 7,000, 도비 120, 시군비 280, 기타 2,406)

□ 추진현황

- '17. 3. 29. : 한동대 2017년도 SW중심대학 선정
- '17. 4. : 과기부-한동대 협약 체결
- '19. 4. 3. : 대구가톨릭대 · 안동대 2019년도 SW중심대학 선정
- '19. 5. : 과기부-안동대 · 대구가톨릭대 협약 체결

□ 사업내용

- 산업계 수요중심 기업인턴십 운영 및 산학공동 프로젝트 수행
- SW연계 복수전공 확대, 전교생 기초 SW교육 필수화 실시
- SW가치 확산을 위한 초중고생, 공무원 등 대상 교육 및 특강

□ 기타사항(지역별 지정현황)

지역	서울/경기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제주	계
대학수 (개교)	20	6	1	2	4	3	4	40
비율	50%	15%	2.5%	5%	10%	7.5%	10%	100%

※ 대구 : 경북대학교('15년 선정)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작성자	과장	임진걸		
			팀장	이경미	주무관	장미남
		연락처	054-880-3177			

경북 북부권 불교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학술대회

- ‘일제 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상(上)’ 발간서 활용 학술행사 -
- 370년전 제작된 상주 용흥사 명문와(銘文瓦) 고국 품으로 -

경상북도는 29일 구미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불교문화 관련단체, 종사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북부권 불교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2011년 설립되어 해외 반출 문화재의 반환 및 우리 문화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문화재 반환, 책자 발간 및 학술행사,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경북도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 ~ 193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의 개별 사찰 소장 문화유산을 조사 정리한 ‘사찰재산대장’과 현재 사찰별 성보문화재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해외로 반출된 성보의 환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찰재산대장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미’를 주제로 동국대학교 김성순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상주지역 사찰의 유출문화재 연구’, 최은령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예천지역 사찰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안동 대원사 등안스님의 ‘안동지역 불교문화재 실태와 활용’ 등 사례발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불교문화 전문가인 최선일 박사가 일본 경매에서 구입

한 ‘상주 용흥사 명문와(銘文瓦)’ 기증식을 가졌으며, 기와에는 용흥사 증건 연도(順治4년/ 1647년)와 시주자의 이름이 양각 되어있어 당시 기와 제작기법과 사찰의 건립연대를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사찰재산대장’ 발간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발간사업을 통해 20세기 전반 개별 사찰의 정보문화재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지역 사찰에서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반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오늘 학술행사를 통해 관련기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반출된 문화재를 도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하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경북 성보문화재」 학술행사 개최

□ 행사개요

- 주 제 : 경북 북부권 불교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일시/장소 : '19. 10. 29.(화) 14:00 / 구미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소극장
- 참 석 : 200명(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불교계 인사, 시민)
- 주최/주관 : (재)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 주요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찰재산대장의 가치와 활용도 조명
 - 일제강점기 사찰재산대장과 현재 성보문화재 실태 비교를 통한 도난·유출문화재 정보 공유
 - 상주 용흥사 명문와(銘文瓦)* 기증식 등

* 일본 야후 옥션에 출품된 기와로 용흥사 증건 연도(1647년)와 시주자 이름이 양각되어 있으며, 문화재청 최선일 위원(문화재청 감정위원)이 낙찰 받아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에 기증

□ 시간계획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 및 내빈소개	-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 유적조사실 단장)
14:05 ~ 14:10	5'	기 증 식	- 상주 용흥사 기와* 환수 * 일본 경매 환수품
14:10 ~ 14:15	5'	개 회 사	- 김영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장)
14:15 ~ 14:20	5'	환 영 사	- 이성철(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장)
14:20 ~ 14:25	5'	축 사	- 도 문화유산과장
14:30 ~ 17:50	200'	학술대회 (기조 및 사례발표, 토론)	- 기조발표 김성순(동국대학교 외래교수) - 사례발표 최선일, 최은령(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안스님(안동 대원사 주지) - 토론 박광현(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이광현(용문사성보박물관 학예사) 장상규(웅부문화원장)
17:50~18:00	10'	폐 회	

□ 용흥사 명문와(銘文瓦)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산림자원개발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작성 자	과 장	김 상 응		
			팀 장	배동록	주무관	김기영
		연 락 처	054-840-8251			

구조 및 치료동물을 건강하게 다시 자연으로

-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독수리·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방사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29일 안동시 도산면 일원에서 독수리 2마리, 수리부엉이 3마리 등 치료·재활된 야생동물을 대자연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사를 실시했다.

금번 방사동물은 기아 및 탈진, 충돌, 외상, 자연적 사고, 기타 등의 원인으로 구조되어 그간 집중치료와 꾸준한 재활훈련을 통해서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방사가 가능해졌다.

경상북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지난 봄, 여름철 야생동물의 번식시기를 거치면서 부상 및 조난당한 야생동물들의 구조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가 끝나고 자연으로 돌아갈 개체수가 늘어났다.

올해 10월까지 388마리의 동물들이 구조되어, 전년 동기(282마리) 대비 구조 건수가 약 38% 증가되었다.

부상 및 질병 상태가 매우 불량한 중증의 구조동물 등을 제외한 구조동물 271마리 중 치료 및 재활을 통해 102마리를 방사했으며, 그중 수리부엉이, 새홀리기 등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총 41마리의 야생동물들은 현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입원실에서 치료중에 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9,600㎡ 부지에 수술 및 치료실, 재활훈련장 등 주요시설과 방사선 촬영장치 등 48종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고,

구조동물의 생존율 증가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종 시설 등을 보강중에 있다.

2011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2012년 동물병원 개설 신고, 2015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등 도내 야생동물의 중요 치료거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야생동물생태공원에는 꽃사슴, 말뚝가리 등 18종 61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사육관리중에 있으며 생태공원 방문객(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 및 단체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야생동물체험학습장에는 독수리, 산양, 점박이물범 등 46종 49마리의 박제표본이 전시되어 있어 휘귀야생동물들을 직접 관람할 수 있고, 또한 체험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야생동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앞으로 방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기 산림자원개발원장은 “부상 또는 조난당한 동물이 치료·회복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안전하게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생태계가 복원되길 바란다” 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경상북도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사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서 소득창출 야생동물 발굴 및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작성 자	부 장	정 광 현		
			과 장	박승우	주무관	정혜진
		연 락 처	054-339-8151			

경북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보건환경 분야 협력 체계 구축

-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국가위생역학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연구기관과 대학을 방문해 보건·환경 분야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 식품분야 연구자 등 3명이 참가했다.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가공식품산업연구소 알마티 본원과 아스타나 지원을 방문하여 식품개발 과정 및 식품 가공 시설과 분석실을 시찰한 후 지난 7월 양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연구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산 오스파노프(Assan Ospanov)’ 카자흐스탄 가공식품산업연구소 씨이오(CEO)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첨단장비와 분석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해 공동 연구를 희망했으며, 이에 양 기관은 유지(油脂)의 기능성 및 품질관리 연구 등 구체적인 공동 협력 과제를 추진기로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가위생역학센터(RepCSSES)를 방문해 ‘알마토브 바롬 이브라지모비치(Almatov Bakhrom Ibragimovich)’ 원장을 비롯한 감염성질환, 환경분야, 식품분야 책임자를 만나 대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앙아시아

의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연구기관과 연구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카자흐스탄은 원유와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고 우즈베키스탄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두 나라 모두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신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의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연구진을 통한 분석 기술 전수에 큰 기대를 보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티아이아이에이엠이(TIAME) 대학(Tashkent Institute of Irrigation and Agricultural Mechanization Engineers)과 타슈켄트 화학기술연구소(Tashkent chemical-technological Institute)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및 환경분야와 식품분야의 현황 설명을 듣고 공동 연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을 통해 한국의 보건·환경 분야 연구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식품, 환경 분야의 기술을 전수하고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29(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작성 자	소 장	장 원 철			
			팀 장	서영진	담당자	남효훈	
		연 락 처	054-673-8064				

약용작물 기능성 연구 및 소재 개발 세미나 개최 **-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새로운 약용작물 산업 성장 동력 발굴 위해 정보 교류의 장 열어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9일 ‘약용작물 기능성 연구 및 소재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약학대학과 상호간에 체결한 학술연구 교류 협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의 생산기반을 갖춘 경상북도 약용작물 산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실시되었다.

경북대학교 약학대학교 송경식 초대학장과 중국 후난중의약대학교 유향전(LIU XIANG QIAN) 부원장이 각각 ‘약용작물 기능성 소재 개발 동향 및 전망’과 ‘중국 약용작물 기능성 연구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기능성 평가의 다양화와 고도화 및 원료물질 안정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관련 연구원들의 활발한 정보 교환과 토론이 펼쳐졌다.

장원철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은 “도내 약용작물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더욱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는 최근 해방풍, 단삼 등의 산업 소재화를 위한 안정생산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

(ICT)을 접목한 환경제어조건 등을 개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재배
여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소재 개발로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용작물 기능성 연구 및 소재 개발’ 세미나 개최

- 약용작물 기능성 연구 관련 국내.외 및 최신 동향 파악
- 연구개발사업 수립을 위한 학술정보 교류 및 연계 강화

개 요

- 일 시 : 2019. 10. 29.(화) 14:00~16:30 (2시간 30분)
- 장 소 : 농업기술원 본관 4층 회의실
- 강 사 : 경북대학교 송경식 교수, 후난중의약대학 유향전 교수
※ 농업기술원-경북대학교 약학대학간 학술연구 교류 협정 체결 (2019. 7. 3.)
- 주 제 : 약용작물 기능성 연구 및 소재 개발

시간계획

시 간		세 부 일 정
14:00~14:10	(10')	○ 등록 및 개회
14:10~15:10	(60')	○ 약용작물 기능성 소재 개발 동향 및 전망 (경북대학교 송경식 교수)
15:10~16:10	(60')	○ 중국 약용작물 기능성 연구의 최신 동향 (후난중의약대학 유향전 교수)
16:10~16:30	(20')	○ 종합토의 및 폐회